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7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가 사망 통지 요건을 확립하는 "피터 포크 법(PETER FALK'S LAW)"에 서명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법률상 후견 절차를 전제로, 무능력하게 된 개인에 관한 사망 통지 및 방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피터 포크 법"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A.3461-C/S.5154-C)에서는 무능력하게 된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감독하기 위한 후견인을 임명하는 법원 명령에서 피후견인의 사망, 장례 및 매장 의식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개인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항상 힘든 일이지만, 작별 인사를 할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도 더욱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의 친구 및 가족이 이 중요하고 어려운 시간에 자신의 사랑을 표시하고,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행법하에서는 일정한 상황에서, 피후견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법적으로 임명된 후견인이 해당 피후견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다. 다른 가족과 친구를 확인해서 이들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 법률은 법률상 후견인들이 더 이상은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무능력해진 피후견인을 부적절하게 고립시킬 수 없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 상원의원 John A. DeFrancisc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제가 제출한 법률안인 피터 포크 법에 서명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제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률은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해당 개인의 상태에 대해 고지받고, 궁극적으로는 사망, 장례 및 매장 의식에 대해 통지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주 하원의원 William B. Magnarel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전설적인 배우 피터 포크를 추모하면서 지어졌습니다. 피터 포크는 뉴욕 토박이였고, 시러큐스 대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이 법률은 개인이 후견인의 보호하에 있게 되는 경우에 성년 자녀와

친족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률은 이들이 해당 개인의 사망에 대해서 통지 받고, 병원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는지 여부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아울러, 이 법률은 후견인을 임명한 법원에서 후견 명령으로 방문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저는 피터 포크의 딸인 캐서린 포크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 그녀는 그를 방문하는 것을 저지당했고, 아버지의 상태에 관한 주요한 변동사항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녀로 하여금 후견인에 의해서 부적절하게 친족과 고립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도록 고취시켰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지칠 줄 모르고 옹호해 준 캐서린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피터 포크 법"은 고인이 된 배우이자 "형사 콜롬보"의 스타인 피터 포크의 생이 마감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습니다. 피터 포크의 딸은 피터 포크의 두 번째 배우자가 그에 대한 후견인 지위를 취득한 다음, 그가 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다른 가족들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